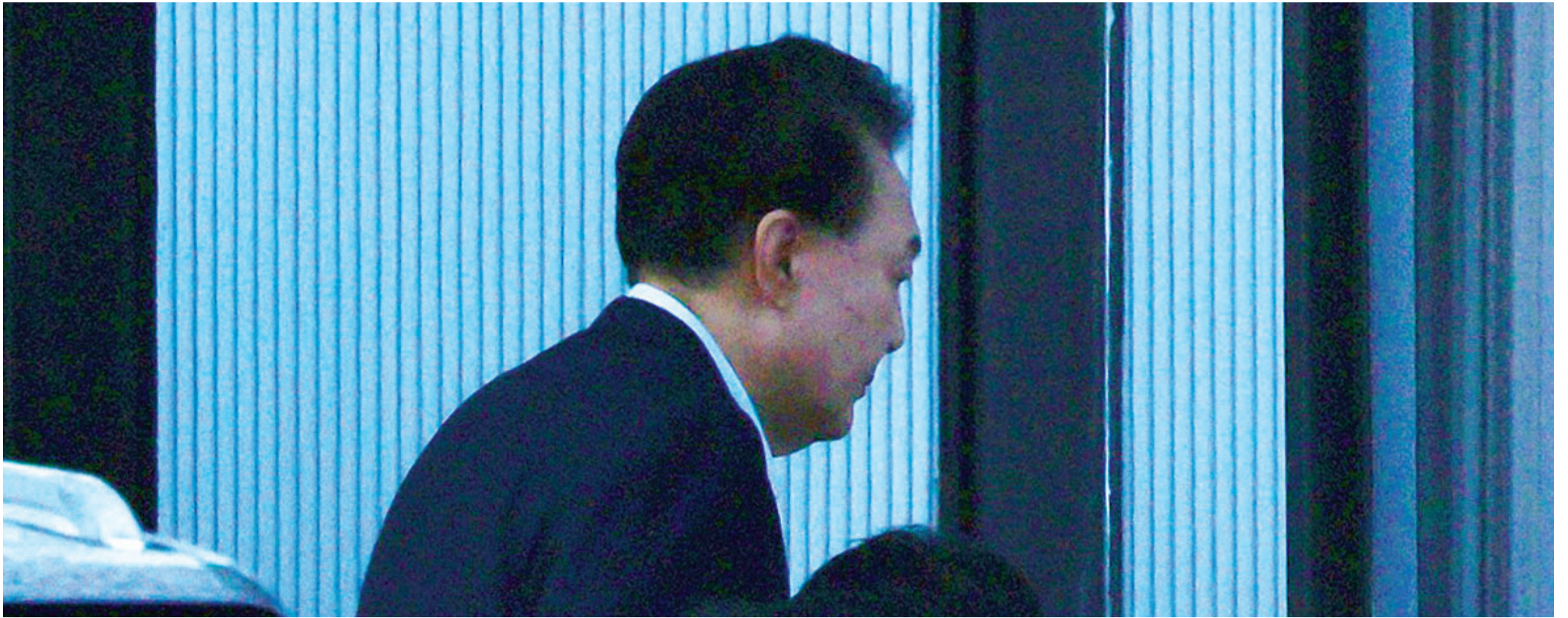


## ‘法통령’ 법에 갇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력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 헌정사상 최초

공수처·경찰, 집행 7시간 만에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불잡혀 간 현직 대통령'이 됐다. <관련기사 2·3·4·5·6면>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 과정에서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며 탄핵은 사기"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은 이날 7시간 여만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부터 시작돼 오전 10시30분께 영장

을 집행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에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저에서 1시간 30분가량 면담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명을 투입해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현장관리를 시작한 뒤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노태우·전두환·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대통령이 됐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처지가 됐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피의자 신분이었던 6명의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 가운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 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며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묵방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행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이날 한남동 관저 내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헌재, 오늘 尹 2차 변론기일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 문제를 내세워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으나 이날은 구금상태여서 출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2차 변론기일에도 법률대리인단만 출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종현 변호사는 15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다"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해도 2차 변론기일은

진행된다. 이번 변론기일부터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 등의 심리가 진행된다.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체포가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헌재가 국회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도 받아보고 탄핵심판 심리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21일과 23일, 2월 4일에도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2회씩 진행되는 셈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립예술단 8개 단체 상반기 라인업 ▶16면
- 광주FC '에이스' 헤이스 3년만에 귀환 ▶18면
- 팔도 핫플레이스 - 거제 '동백섬' 지심도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당신의 다음 클래스를 향해,  
그리고 당신의 여유로운 삶을 향해

The new EQA & EQB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암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종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A 2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5(도상) 5.4, 고속도로: 4.6) 1회 충전거리(km) : 367, 공차중량(kg) : 1985, 배터리 용량(kWh) : 65.9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상)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302, 공차중량(kg) : 2135, 배터리 용량(kWh) : 65.9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